

# 숲 정 이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마태 18. 19).

연중 제23주일

제 1 독서 : 에제33, 7-9  
제 2 독서 : 로마13, 8-10  
복 음 : 마태18, 15-20

## 강론

### ● 군중 일기 ●

윤양 호신부 / 군중

8월 26일, 오늘은 군인성당에 살려온 지 꼭 일년이 되는 날이다. 처음에 올 때는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문득문득 이곳에서의 삶이 기쁨을 주어서 감사를 드리기도 한다.

내가 맡은 곳은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 흩어져 있는 군부대이다. 차로 달리면 앞으로 두 시간, 옆으로 한 시간 반이다. 여러 곳에 있는 부대들은 꼭 군인성당에 오기 전에 살았던 성당의 많은 공소들을 연상하게 해준다. 하지만 일반성당의 공소와 군인성당의 공소는 성격이 다르다. 군인성당의 공소는 수시로 변한다. 내무반, 훈련장, 진지공사장, 보초막, 영창(군대 감옥), 의무대(군병원·진료소), 지휘관 사무실 등. 일반성당의 공소는 최소한 미사가방만 메고 가도 환영받았지만 군인성당의 공소는 그렇지 않다. 위문품이 필수과목이다. 빵, 사탕, 음료수 등. 그래도 하느님은 이 죄 많은 사제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든 것이 기적처럼 매꾸어져서 항상 감사하다.

오늘도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부끄러움뿐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에 기쁨이 찬다.

9월 1·2일, 어제와 오늘은 똑같이 장날이었다. 토요일부터 부대의 주일미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제 오전은 복음 후에 이야기할 강론준비 한담시고 꼬박 책상 앞에 있었다. 오후에는 차로 30분 걸리는 곳에 있는 부대성당에 미사를 갔었고, 저녁에는 45분 정도 달려서 기갑부대성당에 미사를 갔다. 이 부대는 지휘관이 개신교 신자인데 종교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약 200명 정도의 병사들이 모인다. 성당이 비좁을 때가 많다. 미사 후 성모회에서 준비한 커피를 나누면서 목주 20개를 나누어주었다. 그후에 심야 가정방문(직업군인 가정)을 마치고 사제관에 오니 밤1시였다.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바오로 사도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다짐해 본다. “그래, 이 사랑의 의무를 몸과 마음 다해 살자. 내게 주어진 이 삶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부족한 이 사제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인 것을.”

## 소리

### ● 큰 바보 ●

남녘 어느 고을 기관장들과 유지들이 외딴섬 방문차 타고 가던 작은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을 때의 얘기를 전해 들은 일이 있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판에 한 지방관서의 간부급 인사가 “하느님, 저를 구해주시시오. 제게는 부모도 계시고 자식들도 많아서 절대로 죽어서는 안됩니다.”

이 인사의 기도 때문이었을리는 없었겠으나 풍랑이 곧 멎어 모두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을 때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기껏 저 혼자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

누구에게나 살아 있어야 할 까닭은 수없이 많을 것이로되 죽어야 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될 것이다.

최근 날치기를 붙잡으려 뒤쫓다가 범인의 칼에 맞아 숨진 택시기사의 노모는 “아직 장가도 보내지 못했는데”라며 아들의 ‘의로운 죽음’을 못내 슬퍼했다고 한다.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이제 막 자립을 해보려 하던 설흔도 못된 젊은 나이. 한(恨)도 많고 원(願)도 많았을터인데 남의 불행을 막으려다 아까운 목숨을 희생당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예, 아니오’도 분명히 말하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행동으로 불의를 다스리려 했던 고인에게 하느님의 상찬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모두가 ‘행여 내게 무슨 해가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몸을 사리는 세상에 설혹 죽음까지 각오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낮도 모르는 이웃을 위해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젊은이는 바보다. 큰 바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 10). [인]

### 숲정이 산책



축하합니다!

# ✦ 성인 선포식의 의미 ✦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 그날의 감격을 잊었는가? 우리 순교 복자 103위 모두가 성인이 되던 날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그저 먼 옛날의 추억처럼 사라져간 기분이다. 더욱더 활활 타오르리라 믿었던 순교자들에게 대한 애정이 오히려 갈수록 식어져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나만의 것일까?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9월도 중순에 접어든다. 성당마다 울려 퍼지는 '장하다 순교자...' 하는 성가가 웅지 맥빠진 소리로 들려온다. 지금부터 6년 전 '장하다 복자여, 주님의 용사여!'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성가가 아닌 것만 같다. 똑같은 멜로디입에는 분명한데 말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피이라 순교자들의 꽃이어!' '자유를 찾은 교회의 한빛인 기도의 환호가 그 힘을 잃어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경자(可敬者)가 복자로 되게 하고 그 복자(福者)가 성인이 되게 하므로, 그 순교자들의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리라. 그들의 삶과 정신이 만방에 기러지고, 후세 신앙인들의 정신이 되어 다시 살아날 때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다. 이들을 성인품에 올림은 그들에게 어떤 벼슬을 주어 그 피에 보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성인품에 올림으로 후손의 일을 다했다고 생각함은 큰 오산이다. 성인은 되었으나 복자였을 때보다 그의

정신과 삶이 오히려 쇠퇴해간다면 그 성인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의 그 엄청난 사건이 하나의 행사로 잊혀져서는 안된다. 그날 우리 103위 순교 복자를 모두 순교 성인품에 올리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 감사가 하나의 성대한 행사나 전례에 그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린 이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신앙의 선열을 외적으로 기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자랑스러운 선열들의 후예답게 '참된 행복'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실천에 옮겨 나날을 철저히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자신 또한 참신앙을 증거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특히 서울에서 가졌던 사목대회 개최식에서도 피력했듯이, 이제 여러분이 그 살아 있는 신앙의 유산을 더욱더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심화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이 한국 땅에 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리실 풍부한 은혜가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힘써주시십시오"(1984년 10월 한국 순례단에게 하신 말씀).

순교자들의 꽃이 신자들 마음마음마다 활짝 피어 그 열매가 맺을 때 그날의 그 '성인 선포식'이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 전주교구의 성인들 ①

### 성 정문호(바르톨로메오)

순교 성인 103위 중에 병인년(1866)에 순교하신 성인이 24 위이신데 이 중에 성직자가 7명이고 평신도는 17명이다. 이 중 7명이 우리 전주교구 출신이다.

이에 우리 교구 출신 7분 성인들의 행적을 차례로 소개할까 한다. 먼저 성 정문호에 대해 소개한다.

충청도 임천(현 부여군 충화면)에서 태어났으며 학식과 교양과 인격을 겸비한 분으로 한때는 고을의 원님까지 지내신 분이다. 박해를 피해 전라도 여러 지방을 방황하다가 체포 당시는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성동 신리골에서 주로 담배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비록 산간 벽촌에 숨어 살았지만 그의 방정한 품행과 엄격한 예의범절, 박학다식한 학문은 많은 이들의 경탄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그 지역의 덕망높은 '토호 오사현'과는 각별히 친한 사이였다. 여기저기 박해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는 세상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비신자였던 그를 전주에 내보냈다. 그러나 그가 미처 돌아오기도 전인 그해 12월 5일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결국 한원서(베드로)와 손선지(베드로)와 함께 체포되어 구진퍼리(화심)까지 나오니, 성지동에서 살다 잡혀온 조화서(베드로) 일행과

만나 하룻밤을 지내고 전주 감영으로 압송되었다. 감옥에 도착하자 대성동 교우들은 후편, 성지동 교우들은 전편 옥에 감금되었다. 그러나 심문을 받을 때에는 같이 받았는데 한때 마음이 약하여 배교할 뜻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질 못지 않게 강직했던 조화서의 설득으로 다시 마음을 굳혀 순교의 결단을 내린다. 수감된 지 일주일 후인 12월 13일 장날, 사형터인 숲 정이로 압송되던 때, 위로자이며 격려자였던 조화서(베드로)에게 "오늘 우리는 하늘로 과거를 보러 간다. 오늘은 참으로 축복받은 날이다"라며 위로하였다 한다. 결국 그의 머리는 숲정이의 모래밭에 떨어졌고 진복사 밑 모래밭에 가매장되었다. 당시 나이 66세였다. 그후 오사현의 도움으로 다른 성인들과 함께 대성동 근처로 이장되었다가 다시 천호로 이장되었다. 현재는 천호산의 마스한 햇빛을 받으며 3분 성인(손선지, 한원서, 이명서)과 10분 무명 치명인 그리고 고 김제덕 주교님의 증조부이신 김중오 아우구스티누스(공주 황새 바위 순교)와 함께 묻혀 계시며 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계신다.

그는 죽으셨기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있게 된 것이다. (다음은 성 조화서, 성 조윤호 부자를 소개할 예정이다)

## ✦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친(조 루시아) 상례 기도해주신 교형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순달, 순성, 순만, 순열, 안젤라, 안나, 신상길 올림

전화 · 국변경 · 안내

## 백운전자

방송시설, 비디오촬영 전문

백정수(리노)  
이순님(테레사)

전주시민국로 옆

☎ 252-0231

## (여) 사무국장 채용

- 제출서류 ①지원이력서 1통 ②신원증명서
- 자격 ①내출 ②공직경험 또는 교직경험자 원함
- 제출서류기간: 9월 24일까지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연맹장 ☎ 84-2614

천자문 · 사자소학  
사군자 · 전 각

## 명륜서예한문학회

원장 선기정 (오섭)

효자성당 옆

☎ 221-6492



잡 간!

시청·청취 소감문 ②

• 속시원한 T. V.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요즘들어 '아, 요거다!' 싶은 속시원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문화방송의 매주 화요일 밤 열한 시에 내보내는 보도성격을 띤 다큐멘터리 'P. D. 수첩'이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프로듀서의 진지한 설명이 전혀 부담이 없고, 아저씨 같은 친근함에 흥미를 더해준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떼먹고 제 나라로 도망간 사장을 쫓아 미국까지 건너가 투쟁을 벌이는 피코노조의 여성 근로자들을 보고는 힘껏 갈채를 보내주었다. 그밖에도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된 한 여교사의 얘기를 다룬 '선생님의 두 자리', 광주항쟁 10주기를 맞아해 다시 조명해본 '1990년 5월 광주', 대학생 농촌 활동을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그려냈던 7월의 방송 등은 짧디짧은 뉴스시간에는 미처 다루지 못하거나 뉴스거리조차 안될 사건들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함과 조심스러움들이 잠시도 T. V. 화면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힘도 권력도 돈도 없는 일반 시민들, 농민들, 학생들의 진솔한 의견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민중방송이나 공영방송이나 구호만 떠들썩한 느낌에서 이 프로그램은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어느 새 사랑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렸다.

(소견) 제작자의 눈에 비친 세상을, 제작자의 의도대로 재주껏 표현한 것을 보게 된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표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제작자들의 태도를 고무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영주 씨와 같은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매스컴은 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좋은 글 감사한다.(홍보국)

요십이(892) 김병오



교 구 소 식

1. 축! 건진 : 송천동 성당 9월12일(수) 오후8시. 인후동 성당 9월16일(일) 오전10시30분.
  2. 사제 평의회 : 9월11일(화) 오전10시.
  3. 초등부 교사학교 : 9월16일 9시-17시 가톨릭센터.
  4. 전주교구 어린이 성가 경연대회 : 9월23일 전주 성심여고.
  5. 전주지구 모지관리위원회 : 9월12일(수) 오전11시 중앙성당 사제관 대상-주임신부, 사목회장, 애령회장.
  6. 젊은이의 하루(젠모임) : 9월16일 서울 동성고 대강당, 대상-17세 이상 남녀 미혼, 연락처-전주교구청 교육국.
  7. 서신동 천주교회 주소 변경 : 완산구 서신동 308-1.
  8. 효자동 천주교회 전화번호 변경 : 주임신부 223-3822, 보좌신부 223-3823, 사무실 223-3821, 수녀원 223-3824.
  9. 성언복지원 및 수녀원 전화번호 변경 : 471-2549.
  10.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오늘 오후2시 본원(051)67-8237.
  11. 파티마성모수녀회 성소모임 : 9월16일 오후2시-5시 본원(0331)8-5883.
  12. 거룩한 말씀의 수녀원 성소모임 : 매월 넷째주일 서학동 성당 오후2시 (0652)84-2276.
- ※ 축! 영명 : 13일(성요한 크리스소스토모) 오성기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중앙상가 꽃 도매시장

축하바구니 · 조의바구니  
생화 신부부케 분재  
유 제 형(바 오 로)  
김 영 근(크리스티나)  
☎ 251-9600

직 원 모 집

피정의 집에서 같이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인원 : 2명  
\*대상 : 35-50세 신자(여)  
피정시 침식 가능한 분  
\*할일 : 내부 살림  
\*문의 : (0652) 73-6600

천호피정의 집

성심목공업사

성구·제대·강릉대·제구장·긴의자  
탁상·화본대·흔레용기구 맞춤전문  
서 스테파노(옥봉)  
한 인나(은순)  
전주 ☎ 77-1747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수입상품을 사지 말자—

수입 개방화에 따른 외국상표상품의 사용은 우리 문화까지 잠먹고, 우리나라를 경제문화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 특히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훨씬 지난 제품이 많다.  
산다하는 교우집의 냉장고 속에도 들어 있는 수입식료품들, 꼭 그걸 먹어야 할까?

황수경산부인과

의 의 사 황수경(크리스티나)  
산부인과선문의 이 승 렬(엘 리 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혼수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계끼한복·각종이불맞춤  
부 인 주 단  
김 한 중(요 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눌부보삼

오 재 천(안드레아)  
정 봉 교(마키엘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 정음·김제지구 본당소식

## \* 고창

사제관 63-2552 주임신부 김진화  
 사무실 64-2044 사목회장 이면우  
 수녀원 64-3529

- ※ 이달의 성서읽기: 구약, 레위기 31세.  
 1. 모임: 사목회,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다음주-요셉회, 청년회.  
 2. 공소미사: 심원. 3. 구역모임: 성남구-10일, 성북구-12일, 남흥구-13일, 중흥1구-14일, 중흥2구-15일, 부안면구역미사-11일.  
 4. 유아세례: 수요일 어머니미사중 미리 사무실에 접수바람.  
 5. 교육관 신축공사가 신자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진행되어 갑니다: 총공사비: 85,000,000원 신인액: 64,749,980원 입금액: 32,351,888원.  
 6. 오늘 성당침소: 가쁜의 모후 다음주: 정의의 거울.  
 7. 전례: 해설-이경택 복사-이상수, 송기수 독서-염종명, 조영희 봉헌-정기백, 이진아 신자들의 기도-정기백.  
 □ 지난주 봉헌금: 289,550원 □ 교무금: 73,000원

## \* 부안

사제관 84-1331 주임신부 안철문  
 사무실 84-1333 사목회장 양용삼  
 수·유 84-1332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랑의 성미봉헌: 신자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3. 공소미사: 오늘 오후3시 청호, 16일 바포 공소.  
 4. 본당 침소: 1구역(1, 2, 3번).  
 □ 지난주 봉헌금: 411,080원 □ 교무금: 214,000원

## \* 수류

사제관 주임신부 문선구  
 사무실 43-0581 사목회장 고광열  
 수녀원

- ※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지난주 목주기도: 함께:  
 1. 오늘 모임: 모니카회-공식미사 후 교육관에서.  
 2. 다음주 모임: 소화회-공식미사 후.  
 3. 공소미사: 다음주 오후4시 구장공소에서.  
 4. 성지순례 접수중: 사무실에서 충북 연풍성지 참가비-8,000원.  
 5. 성당침소: 금주-죄인의 의탁Pr. 다음주-성당: 평화의 모후 Pr 교육관: 정결하신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52,910원 □ 교무금: 30,000원

## \* 시기동

사제관 32-3282 수녀원 33-9219 주임신부 김진석  
 사무실 535-2169 유치원 32-5777 사목회장 김동필

1. 신우회: 공식미사 후.  
 2. 어린이영세: 오늘 오후3시 12시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람.  
 3. 사목회 상임회합: 12일(수) 저녁미사 후.  
 4. 교육관이 완공되어갑니다: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예비자 교리: 주일공식미사 후와 수요일 저녁미사 후.  
 6. 본당 성지순례: 16일(주일) 오전8시출발 장소-서산군 해미성지, 참가비-1인당 6천원, 준비-미사도구, 도시락 지참. 13일(목)까지 신청바람. 구역장님 협조요망.  
 7. 성당침소: 월-매괴의 모후 토-순결하신 정녀.  
 □ 지난주 봉헌금: 512,440원 □ 교무금: 839,150원

## \* 신태인

사제관 571-2444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571-2024 사목회장 오영화

- ※ 9월은 순교 성월입니다.  
 1. 사목회 월례회: 성지순례 목적지에서 갖음.  
 2. 다음주 모임: 명도회(16일), 빈첸시오(공식미사 후).  
 3. 본당 공소 신자분께: 병자성사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공소는 공소미사때 성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 \* 성지순례 협조하신 봉사자께 감사드립니다. \* TV, VTR 협조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82,990원 □ 교무금: 313,000원

## \* 신평

사제관 44-2272 주임신부 이성우  
 사무실 44-2271 사목회장 김진태  
 수녀원 44-2273

1. 오늘의 모임: 방저거삼회, 자모회. 2. 다음주 모임: 울뜨레아회, 애령회.  
 3. 공소미사: 오늘-신암광소. 다음주-용지광소.  
 4. 금(차)주간 본당행사: 9.12(수)사랑을 나누는 천교미사와 나눈의 잔치(준비4구역), 9.16(일) 요촌, 신평, 중·고학생 친선체육대회(11시-금성여중에서) 많은 응원과 협조 바랍니다.  
 5. 신부님들께 많은 기도: 9.17(월)~9.22(토)까지 전주교구 신부님들께 많은 기도에 입소하십니다(최호성지) 많은 기도 바라  
 6. 엠프레 협조 형태: 성당내 약방-1만원, 6구역-석장자 1만원, 7구역-서순자 1만원, 4구역-정금순 1만원, 11구역-김준현 3만원 감사합니다.  
 7. 금주 독서전례: 독서-성조들의 모후Pr 전례-이주원 차주 독서전례: 독서-자비의 모후Pr 전례-백강석  
 8. 성당침소: 금주-10구역 차주-11구역  
 □ 지난주 봉헌금: 289,900원 □ 교무금: 240,000원

## \* 연지동

사제관 33-0044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33-0898 사목회장 김복열  
 수녀원 33-2578

1. 오늘 모임: 베드로회·바오로회·대건 안드레아회·원서회·성심회-10시미사 후. 재속 방저거 3회·지혜로우신 동정녀·소년꾸리아-오후2시.  
 2. 에스텔회: 13(목) 오전10:30. 3. 다음주 모임: 성모회.  
 4. 중·고생 성지순례: 9.23일, 06시 미리내 회비-2,000원, 미사도구, 도시락 준비. 5. 전 신자 성지순례: 10.9 출퇴·해미 다음 주일까지 선착순 150명 신청, 참가비 8,000원. 6. 예비자 모집을 위한 기도: 9월중. 9.30일 마지막 주일 예비자 환영식. 7. 특별헌금 실입자: 이혁중-10만원, 김진호-10만원, 신기술-50만원, 김옥희-50만원, 수녀님 일동-10만원, 허진-50만원, 윤숙란-20만원, 송구용-10만원, 익명-30만원 신인액: 35세대 8,180,000원 봉헌액: 21세대 3,480,000원  
 금주 성당침소: 월-중개자의 모후Pr 토-매괴회.  
 □ 지난주 봉헌금: 390,450원 □ 교무금: 532,000원

## \* 요촌

사제관 44-0152 수녀원 44-0151 주임신부 안용기  
 사무실 44-0151 유치원 546-3788 사목회장 조두중

1. 오늘의 모임: 대건회, 프란치스코 재속형제회.  
 2. 성가정회 월례회: 14(금) 오후3시.  
 3. 윤호회 월례회: 15(토) 저녁8시.  
 4. 성탄반 예비자교리: 공식미사 후 성당, 금요일 저녁8시 사제관.  
 5.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행사: 23일(일) 공식미사 후.  
 6. 이달의 성당침소: 사랑하을 어머니Pr. 상지의좌Pr.  
 7. 차주 모임: 꾸리아 회합.  
 8. 차주 전례 및 독서: 전례-박병현 저녁-신의철 독서-고영창, 김현숙  
 □ 지난주 봉헌금: 573,050원 □ 교무금: 780,300원

## \* 원평

사제관 43-0880 주임신부 최용준  
 수녀원 43-4236 사목회장 오재천

1. 금주 모임: 성모회.  
 2. 차주 모임: 테레사회, 대건회.  
 3. 반 모임: 9월14일(금) 저녁8시30분. 모든 구역장, 반장들은 출석수범해주시고, 전신자 가족들은 자신이 속한 반 모임에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3,700원 □ 교무금: 33,000원